

사회

# 이장·통장이 뭐길래...

## 위촉·해촉 싸고 주민 갈등 ... 고소·고발에 소송까지

통·이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웃사촌의 정(情)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고소·고발은 물론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마을 주민들을 분열과 반목으로 밀어넣고 있다. 도대체 이·통장이 어떤 자리길래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광주시 북구 A마을 B통장은 지난달 10일 해촉됐다. 주민 간 갈등을 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발단은 지난 5월 1일 B통장이 마을수익금을 공동 관리해온 은행계좌의 예금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일부 주민들과 함께 광주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직무정지에 “철회하라” 집회

하지만 반대편 주민들은 “예금주 변경을 원하지 않는데 B통장이 주민 갈등의 한 축에 가담해 분열을 조장한다”며 구청에 ‘통장 해촉’을 요구했다. 구는 곧장 진상조사에 나섰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B통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B통장은 이에 불복해 청와대·시청·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툼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성근 남면도 이장 해촉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남면의 C마을 D이장은 지난달 21일 해촉됐다. 행정업무 불조해할 이장이 시책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마을 주민 40여 명이 지난달 29일 군청사 앞에서 “이장 해촉을 철회하라”며 집회

를 벌였다. 그러나 남면 측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월급 등 年 320만~420만원 혜택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될 정도로 이·통장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때문이다. 이·통장은 한 달 급여 20만 원에 회의수당(1회 2만 원), 추석과 설날 상여금(각각 20만 원), 자녀의 성적 장학금 등 연간 320여만 원에서 최대 420여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이·통장직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통장 선출을 주민 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마을도 있다. 북구 건국동 W마을 60세대 주민들은 매년 2월 초 마을 회의를 열어 통장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추천을 통해 선출할 경우 인맥에 의한 끼리끼리 선출이라는 비난 소리가 있고, 선거로 뽑으면 후보자간 경쟁으로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단일 후보 선출 후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어 잠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 선출 후 마을잔치...잠음 막기도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통장 자리가 명예 봉사직이라는 인식 대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주민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환경 관련업체서 골프 접대·수취

## 영산강환경청 직원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폐기물처리업체 등 환경 관련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K(45)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이사 L(51)씨에 대해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폐기물처리업체 사장 L(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청 지도 및 환경사범 수사·단속업무를 보면서 L씨 등 2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

는 대가로 36회에 걸쳐 국·내외 골프 접대를 받고 현금 600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골프를 치기 위해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담당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업무 특성이 외근이 잦고 자체 감찰기능이 없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세무조사 무마” 뒷돈

## 의약품 도매업자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의약품 도소매업자 조모(4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23일 완도의 모 병원 원장 K씨를 만나 “세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동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를 받을 경우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속여 세무 조사 무마를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해 1천800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K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 뿐”이라며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수능 마친 고3 설레는 첫 화장 18일 광주 송일고에서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상대로 미용강좌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난방기구 과열 화재 잇따라

## 목포 계란 도매점·강진 주택서 수천만원 피해

날씨가 추워지면서 광주·전남에서 난방기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새벽 0시30분께 목포시 상동 박모(43)씨의 계란 도매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포 168㎡와 계란 2천여판이 타 4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씨가 켜놓은 전기히터가 과열되면서 이불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전남 오전 6시10분께는 강진

군 대구면 계율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강진=남철희기자 choull@

군 대구면 계율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강진=남철희기자 choull@

# 납은 소방장비 ... 시민 안전 ‘빨간불’

## 광주시행정사무감사, 고가사다리 60% 연한 넘겨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노후화가 심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이 1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소방안전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펌프차 등 전체 소방차량 150대 중 23%인 35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노후차량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

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인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 노후화율이 60%와 40%에 달해 전국 평균(24.3%, 28.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소방서에는 내용연수가 12년인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 사다리차가 각각 5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인 5대가 이미 내용연수를 1년~5년1월을 넘겼다. 또 직접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물탱크차(7대 중 2대)와 펌

프차(44대 중 13대)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소방서가 보유한 내폭 소화차는 제작된 지 15년4개월이나 돼 내용연수 8년을 무려 7년4월이나 초과했다. 손 의원은 “시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총 16대의 노후차량 교체 사업을 추진했지만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량의 교체는 배제됐다”며 “이는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잘못된 소방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vpark@kwangju.co.kr

## 용두동 아파트 화재...40대 중태

18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J아파트에 사는 황모(47)씨의 집 안방에서 불이 나 내부면적 69.4㎡ 중 16㎡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안방에 있던 황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목격자들은 “황씨의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기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원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957) 김종두



## 국제재단 간부 사칭 4억 사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유령’ 국제재단 간부 신분으로 사칭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여대의 돈을 가로챈 천모(5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씨는 지난 8월 영광군 모 굴비 유통업체에서 “세계최소년 교육재단 이사로 활동 중인데, 100여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여 박모(48)씨로부터 4억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여성 숙웃 100점 출신 50대 ‘덜미’

○광주의 주택가에서 여성 숙웃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50)씨는 18일 오전 8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김모(여·39)씨의 집 마당에 있던 빨랫줄에서 여성 숙웃 2점을 몰래 가져오는 등 100여차례에 걸쳐 숙웃 100점을 훔쳤다는 것. ○박씨는 범행 후담을 낚던 중 이 일대 주택가에서 “숙웃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여성 숙웃을 갖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 ○담담 경찰은 “훔친 숙웃이 얼마나 많은지 50ℓ 짜리 쓰레기 봉투에 꽂찰 정도였다”고 설명.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 최초!**  
**무료**  
**윤성 커뮤니티, 탄생**

100% 무료

1666-5425

**Citi 신용대출**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010-7167-3838

**냉·온 정수기 렌탈 월 19,900원**

정수기프라자 1544-1219